제출 증빙자료

“엄마 근무표”를 AI로 자동화하기까지

ChatGPT·Claude 실제 대화 캡처 14장 + 결과 화면 5장

핵심 이야기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부탁하던 근무표 작성을 AI로 해결하려고 시작했다. ChatGPT로 기존 서비스와 사업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아이디어 권리화 신청서를 정리한 뒤, Claude로 10월 근무표와 관리형 웹 MVP를 구현했다. 실제 휴대폰 화면을 보며 UI를 수정하고 카드태그 알림까지 추가·확인했다.

핵심 캡처 구성

01 **실제 문제와 GPT 기획 (3장)**

첫 질문 · IP디딤돌 문의 · 아이디어 권리화 문서화

02 **Claude 교차검토와 초기 근무표 (캡처 3장 + 결과 화면 1장)**

별도 사업성 검토 · 10가지 근무조건 · 10월 계획표 · 실행 화면

03 **웹 MVP와 관리형 스케줄러 (3장)**

3분 만의 웹 시제품 · 결근 재배분 · AI 오류 재확인

04 **실사용을 통한 모바일 개선 (캡처 3장 + 결과 화면 2장)**

목록 축 변경 · 관리형 목록 화면 · 폰 화면 수정 · 실제 모바일 결과

05 **카드태그 알림 검증 (캡처 2장 + 결과 화면 2장)**

알림 아이디어 · 캘린더 일정 파일 · 캘린더 등록 화면 · 실제 알림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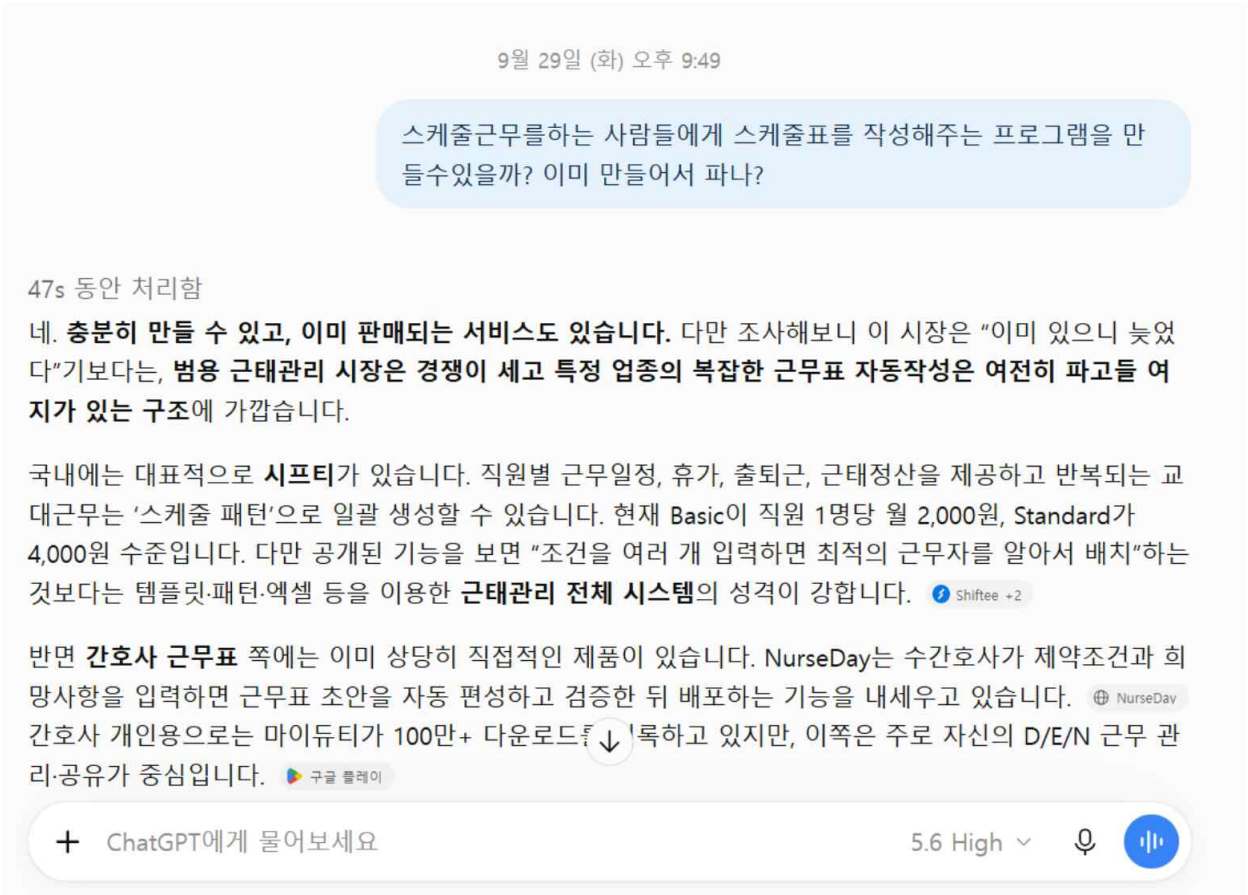
증빙자료 참고

- 이미지 속 AI와의 대화는 사용자의 실제 캡처입니다.
- 사업 가능성은 AI에게 검토만 받고 MVP 이후 사업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카드태그 일정 파일은 사용자의 휴대폰에서 다운받아 캘린더에 가져와 계획 시각대로 등록되고 실제로 알림이 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결과 화면 D·E).

01 현장의 반복 요청에서 AI 기획으로

캡처 01 | 첫 질문: 제작 가능성과 기존 판매 서비스 탐색

ChatGPT · 2026.09.29 2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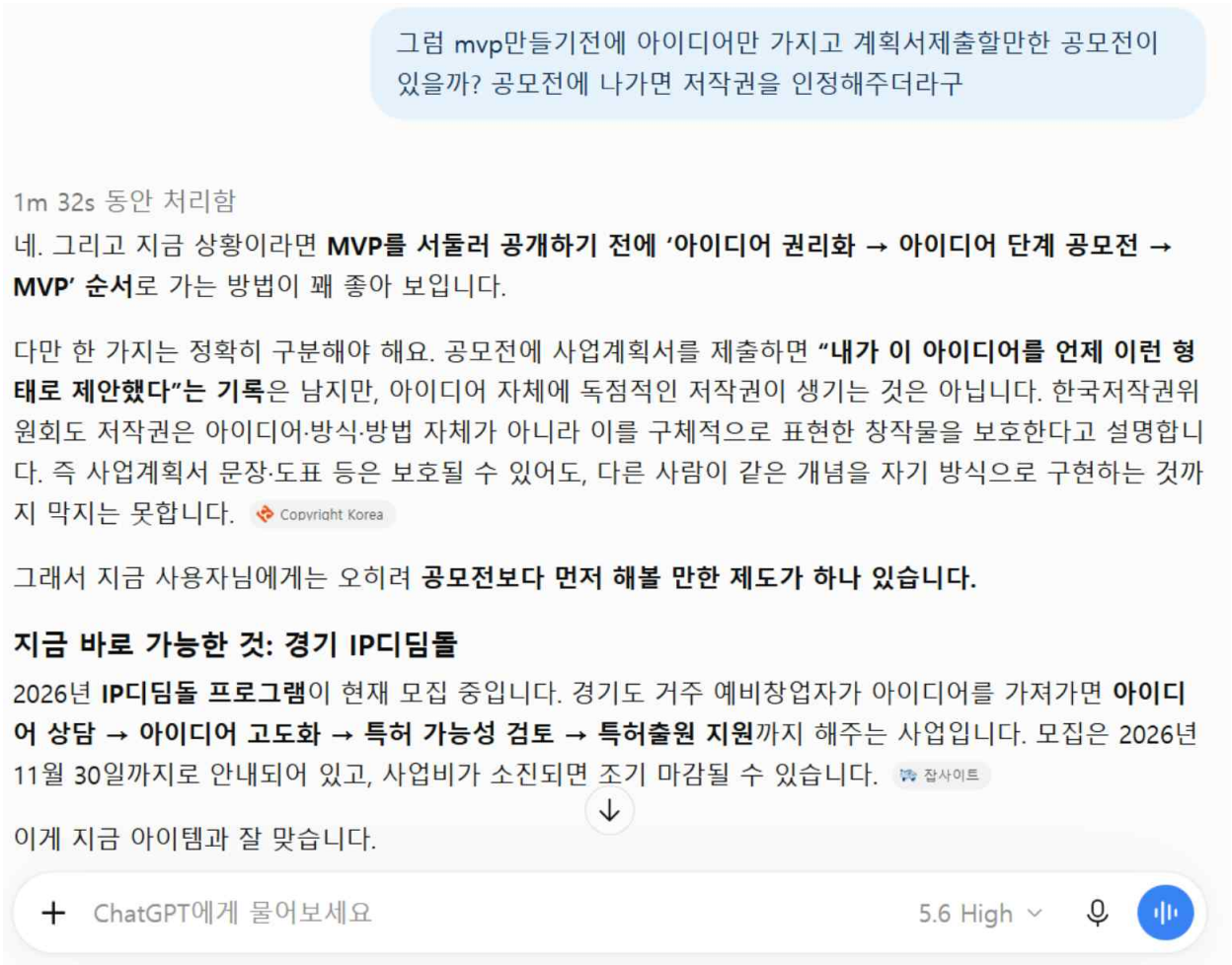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스케줄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스케줄표를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이미 만들어서 파나?"라고 질문하고, 기존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의미	어머니가 반복해서 부탁하던 근무표 작성을 AI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지 탐색한 최초 질문이다.

01 현장의 반복 요청에서 AI 기획으로

캡처 02 | MVP 전에 아이디어만으로 검토받을 방법 문의

ChatGPT · 초기 기획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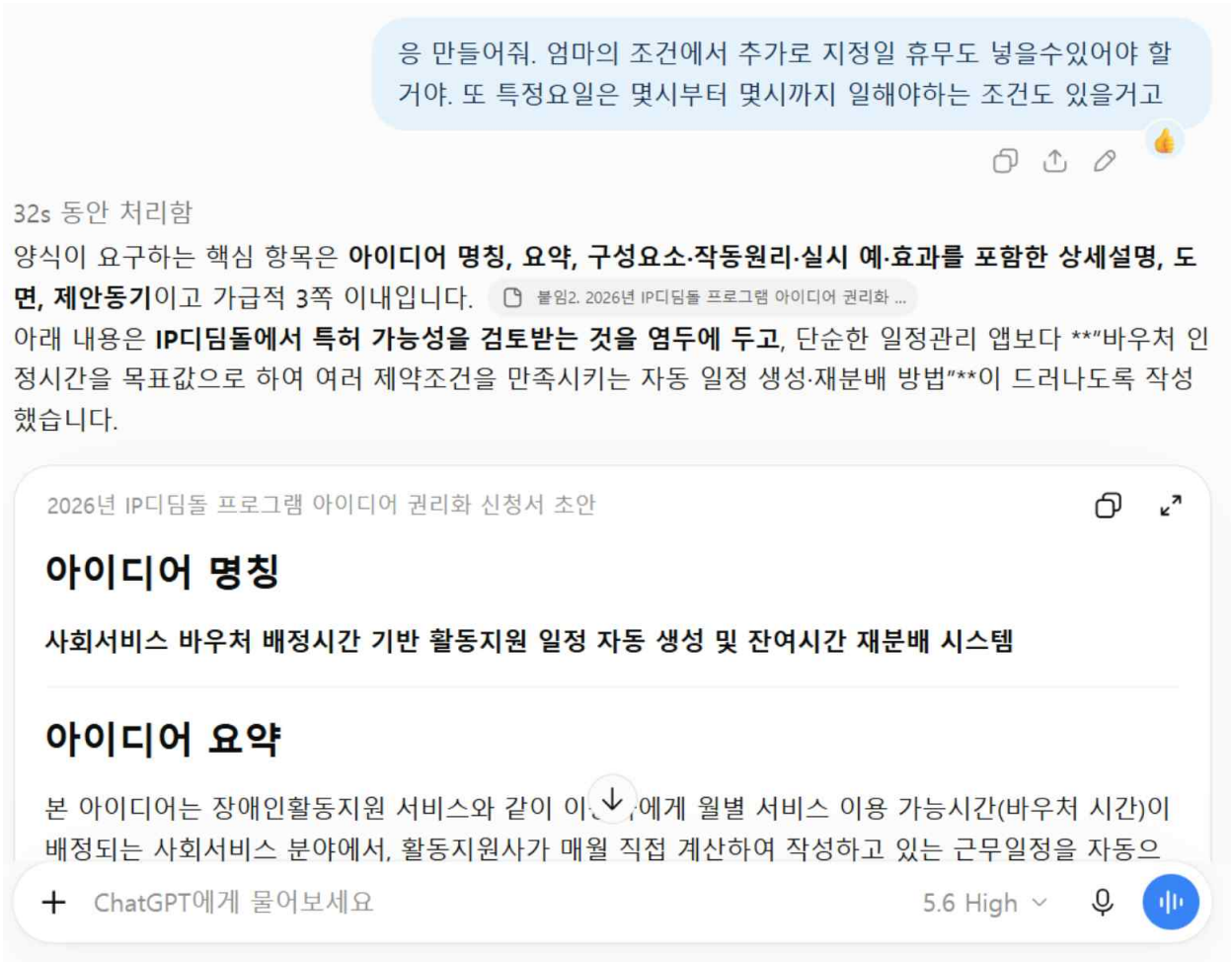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MVP를 만들기전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획서제출할만한 공모전이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IP디딤돌 지원사업과 아이디어 권리화 신청 방향이 제시됐다.
의미	개발 전에 아이디어를 문서로 검토받을 방법을 찾고, 실제 지원사업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로 이어졌다.

01 현장의 반복 요청에서 AI 기획으로

캡처 03 | 아이디어 권리화 신청서 초안 작성

ChatGPT · 2026.09.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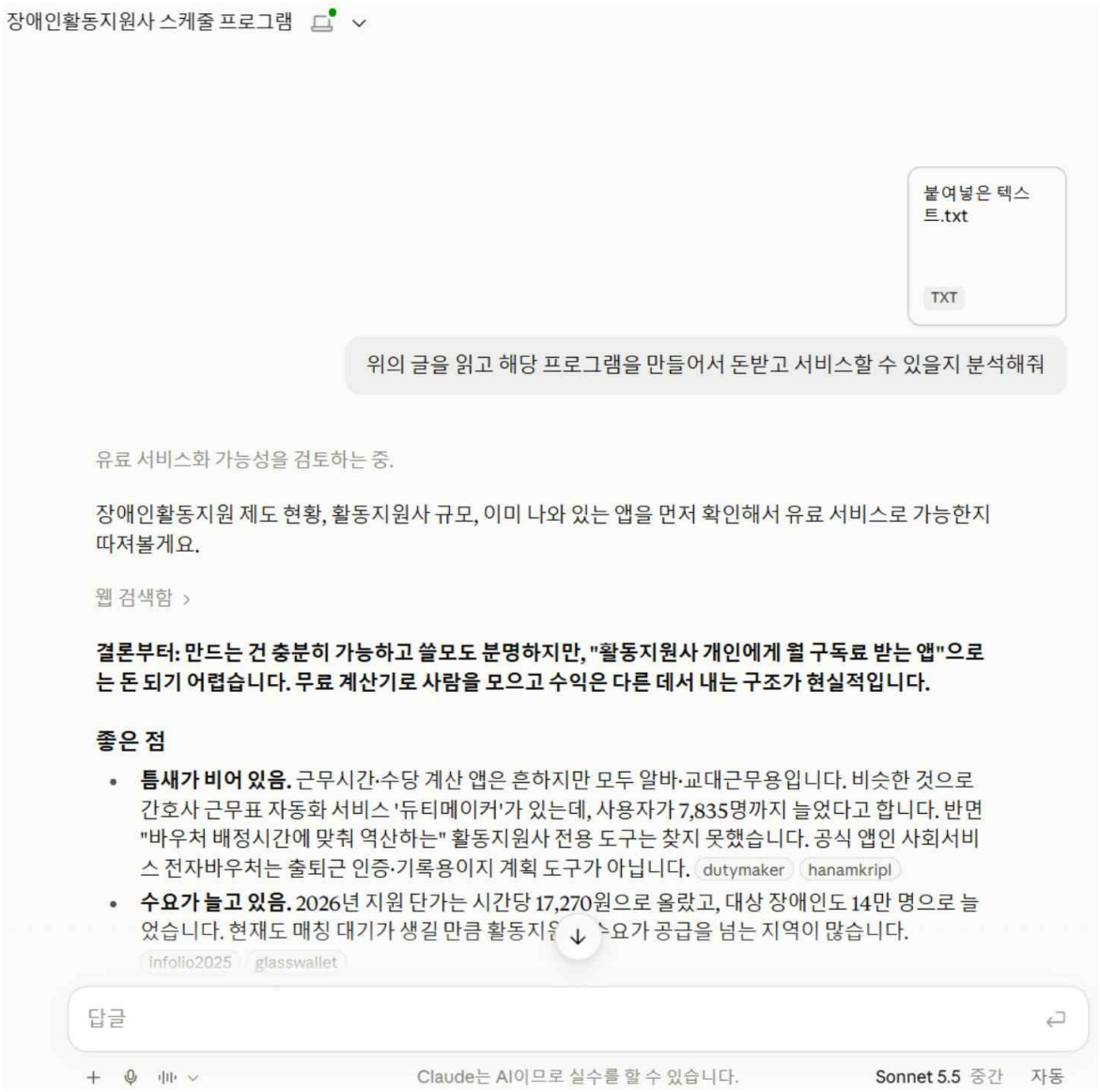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고정 휴무일, 특정 요일의 별도 근무시간 등 실제 조건을 덧붙였고, ChatGPT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배정시간 기반 활동지원 일정 자동 생성 및 잔여시간 재분배 시스템" 신청서 초안을 작성했다.
의미	막연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업무규칙과 기능요건으로 바꾸었으며, 이후 Claude에 전달하는 개발자료로 활용했다.

02 AI 교차검토에서 실제 10월 근무표로

캡처 04 | ChatGPT 정리 문서를 Claude에 전달해 교차검토

Claude · 2026.09.30 0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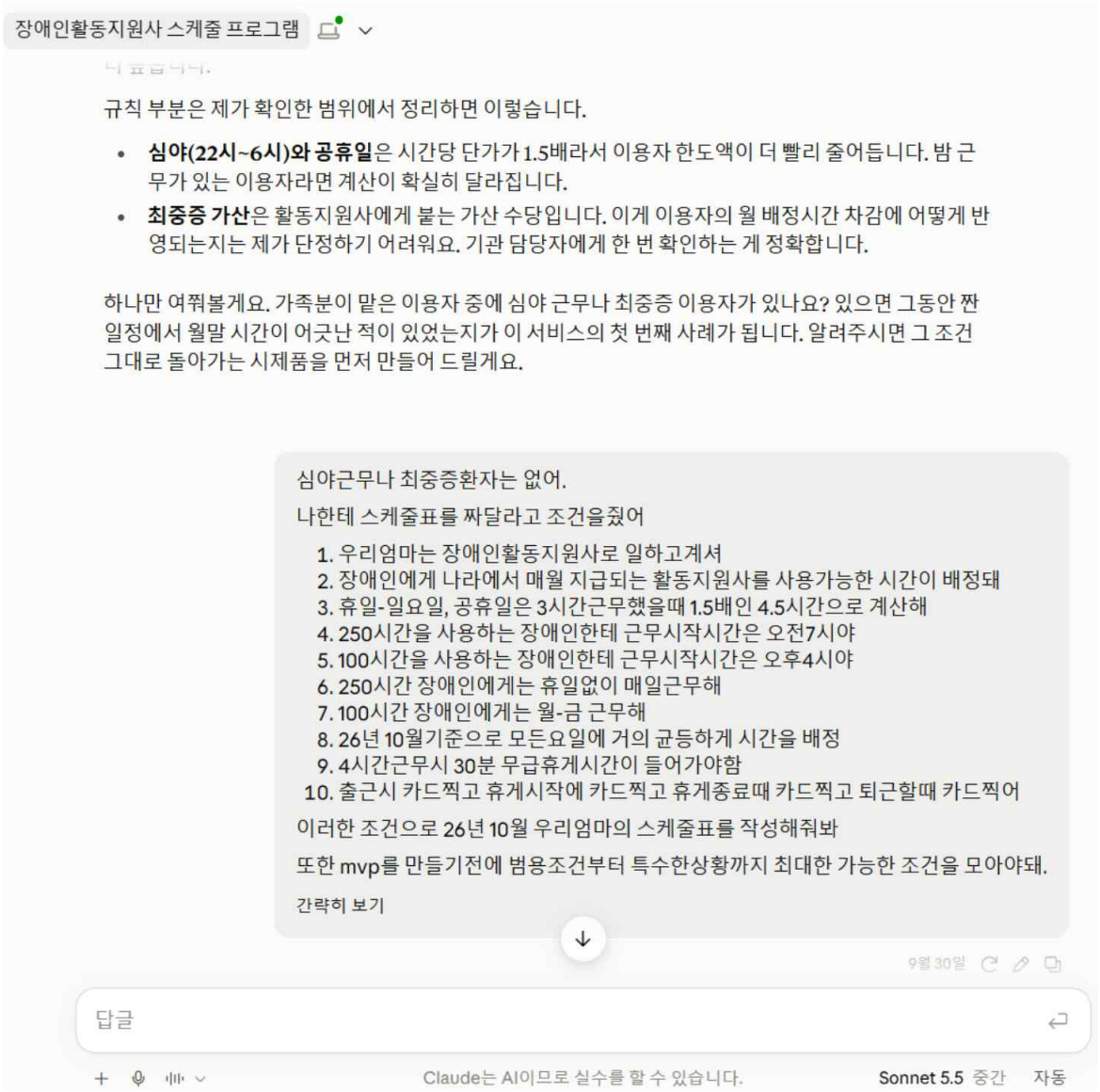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아이디어 문서 파일을 첨부하고 "위의 글을 읽고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받고 서비스할 수 있을지 분석해줘"라고 요청했다.
의미	한 AI의 견해만 수용하지 않고 다른 AI의 비판적인 분석을 확인했다. 유료화 가능성을 검토한 뒤 후속 질문을 이어갔다.

02 AI 교차검토에서 실제 10월 근무표로

캡처 05 | 어머니의 10가지 실제 근무조건 입력

Claude · 2026.09.30 0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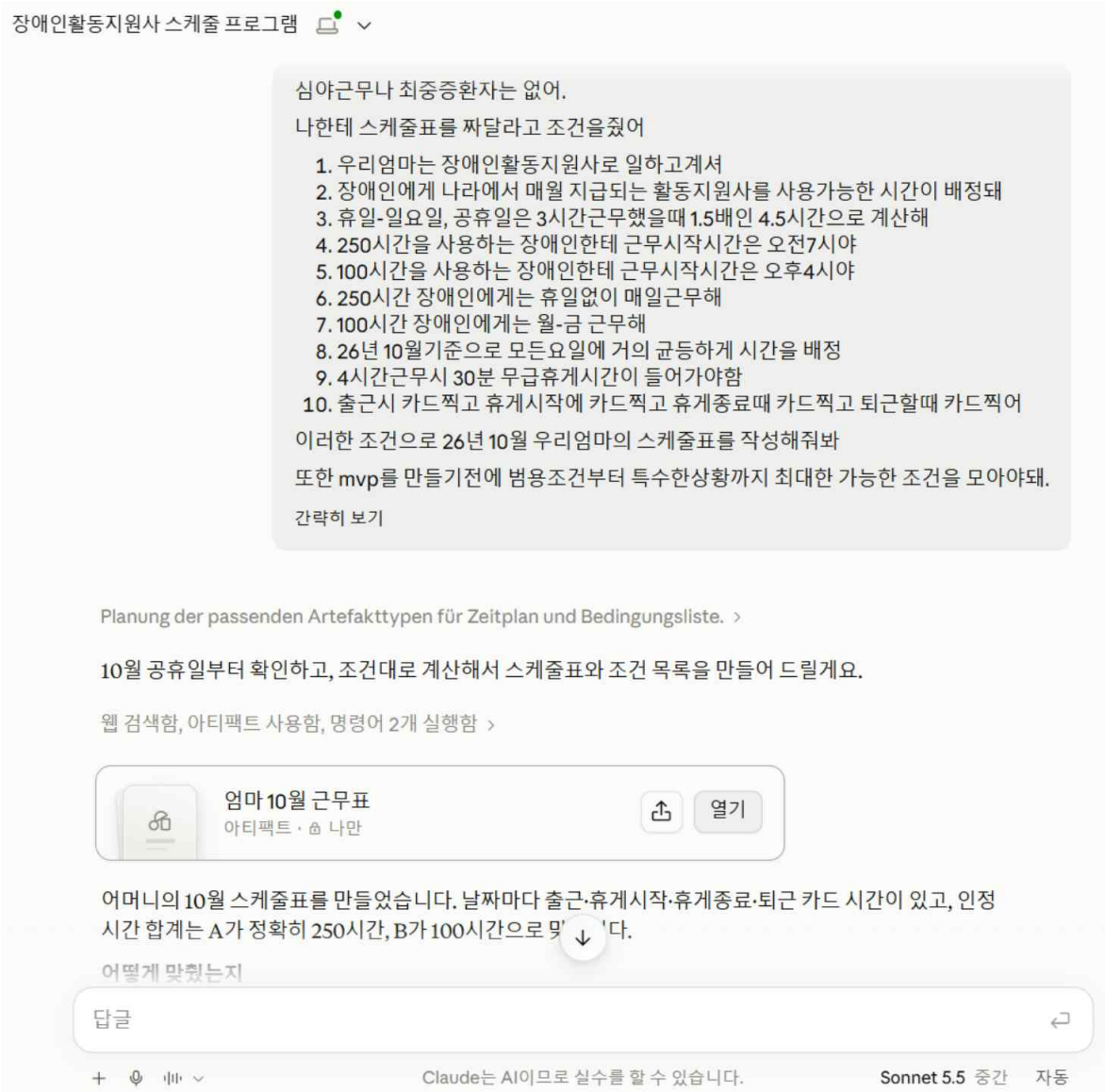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월 250시간·100시간, 매일 07:00·평일 16:00 시작, 일요일·공휴일 가산, 무급휴게, 카드태그 4회 등의 조건을 직접 열거하고 2026년 10월 근무표를 요청했다.
의미	AI에게 추상적인 요청 대신 현장에 근거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공하여 계산 가능한 입력조건을 구성했다.

02 AI 교차검토에서 실제 10월 근무표로

캡처 06 | 2026년 10월 첫 근무표 산출

Claude · 2026.09.30 0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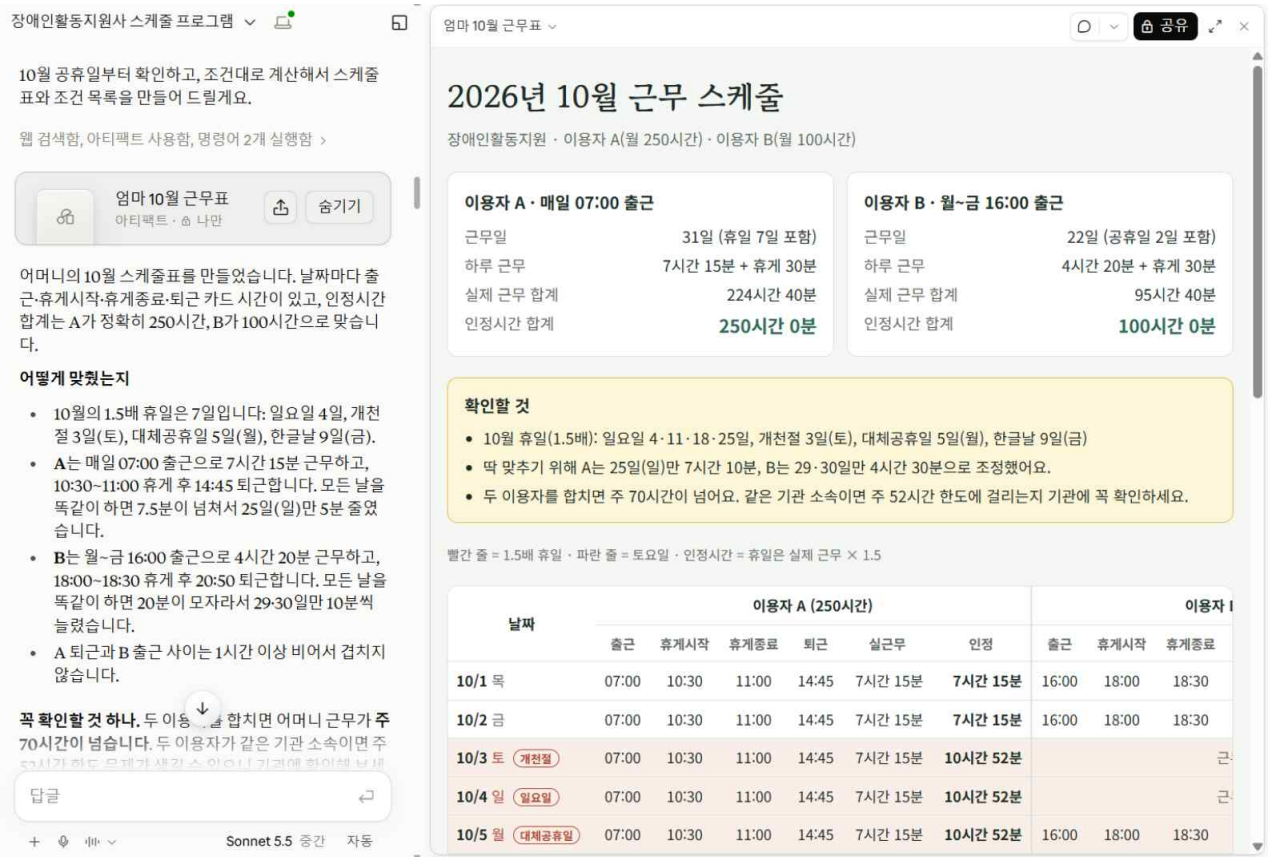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입력한 실제 조건을 바탕으로 이용자 A의 월 목표 250시간과 이용자 B의 100시간을 맞추는 10월 근무계획을 제안했다.
의미	기획 문서에서 실제 날짜별 근무계획으로 전환된 첫 결과다.

02 AI 교차검토에서 실제 10월 근무표로

결과 화면 A | 2026년 10월 첫 근무표 아티팩트 실행 결과

Claude 아티팩트 · 2026.09.30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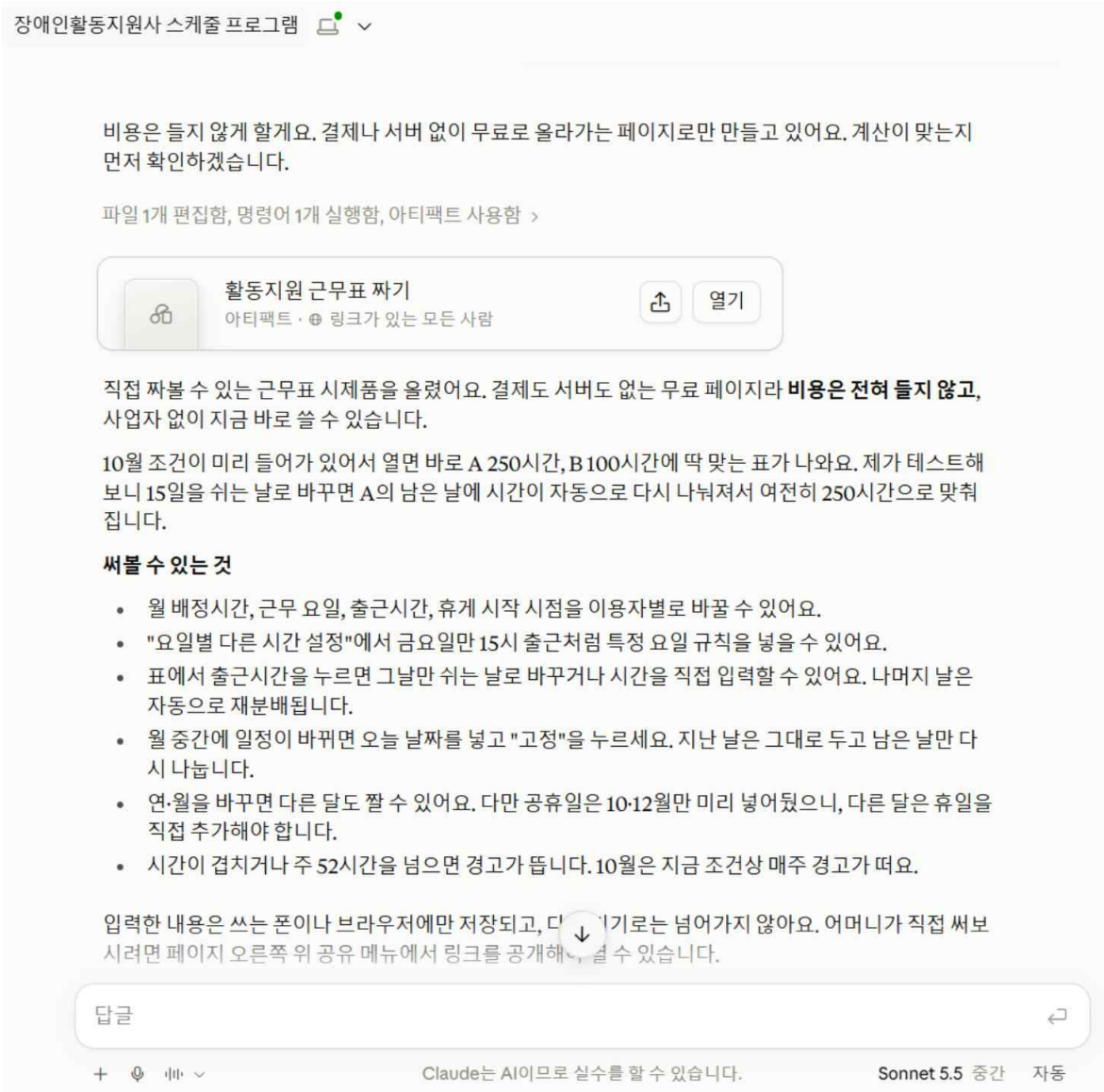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엄마 10월 근무표」 아티팩트 화면이다. 이용자 A(월 250시간)·B(월 100시간)의 근무일·시작시간, 실근무 및 인정시간 합계, 날짜별 출근·휴게·퇴근·인정시간 표가 나타난다. 화면에는 목표 인정시간 A 250시간, B 100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의미	캡처 05~06에서 입력한 실제 근무조건이 월별 합계와 날짜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무계획표로 구현된 결과다. 수치는 프로그램이 산출한 계획값이다.

03 3분 만의 웹 시제품, 그리고 업무 관리로 확장

캡처 07 | 0시 51분 요청, 0시 54분 웹 MVP 제시

Claude · 2026.09.30 00:51~0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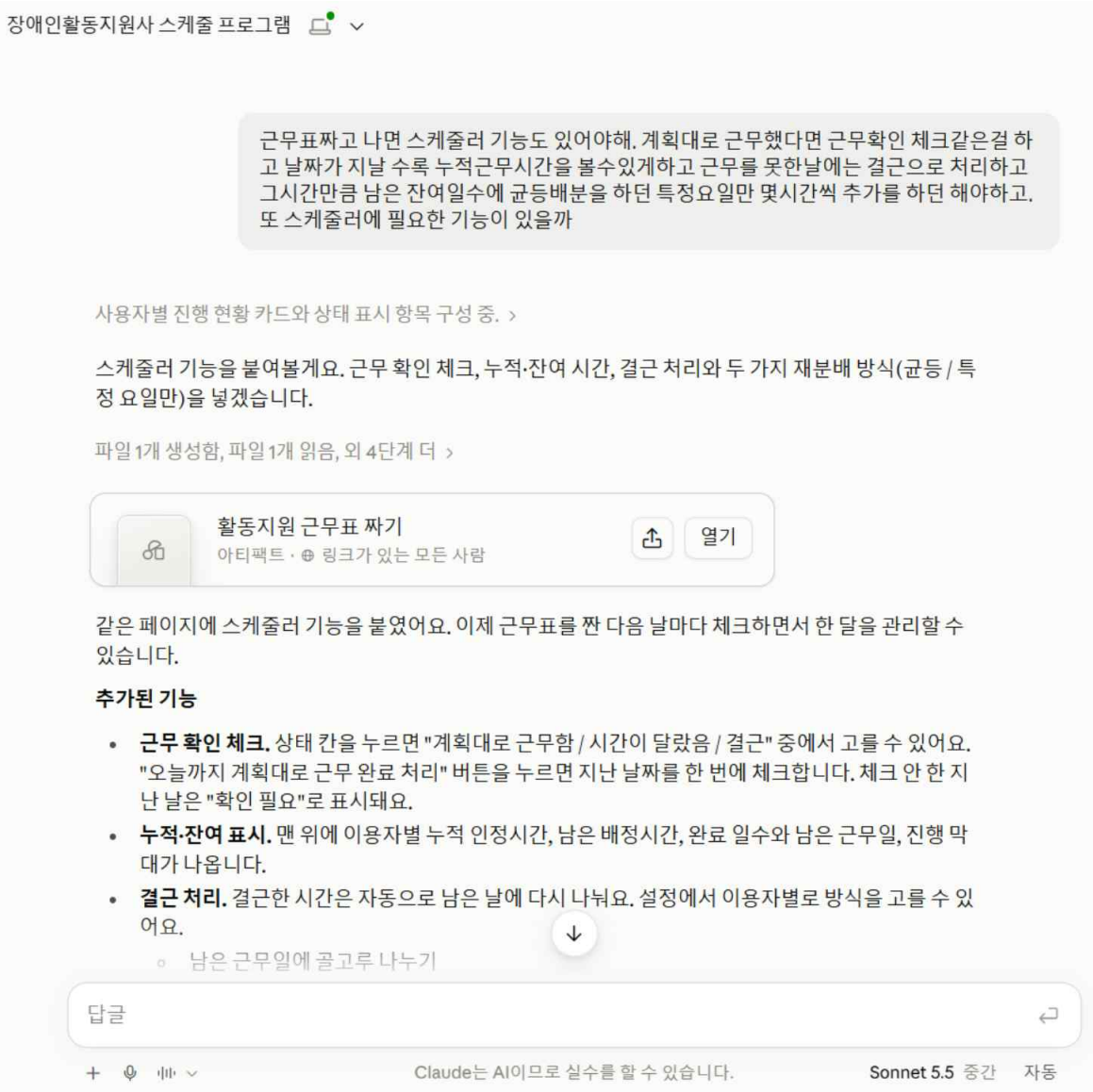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10월꺼를 직접 짜볼수있게 만들어줘봐"라고 요청한 뒤, 설정을 바꿀 수 있는 '활동지원 근무표 짜기' 웹 아티팩트를 받았다. 월 배정시간·요일·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의미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가 자연어 요구사항으로 짧은 시간 안에 조작 가능한 시제품을 얻은 과정이다.

03 3분 만의 웹 시제품, 그리고 업무 관리로 확장

캡처 08 | 완료 확인·누적시간·결근 재배분 기능 추가

Claude · 2026.09.30 01:03~01:06



화면에 나타난 사실	계획대로 근무한 날 체크, 누적·잔여시간 조회, 결근 시 남은 근무일 전체 또는 특정 요일에 시간 재배분을 요청했다. Claude는 해당 기능을 추가했다.
의미	일회성 자동 근무표에서 근무 도중 발생하는 변경과 잔여시간을 관리하는 업무도구로 발전한 결정적인 개선이다.

03 3분 만의 웹 시제품, 그리고 업무 관리로 확장

캡처 09 | AI의 '시간 소멸' 가정 재확인 및 달력형 추가

Claude · 2026.09.30 01:09~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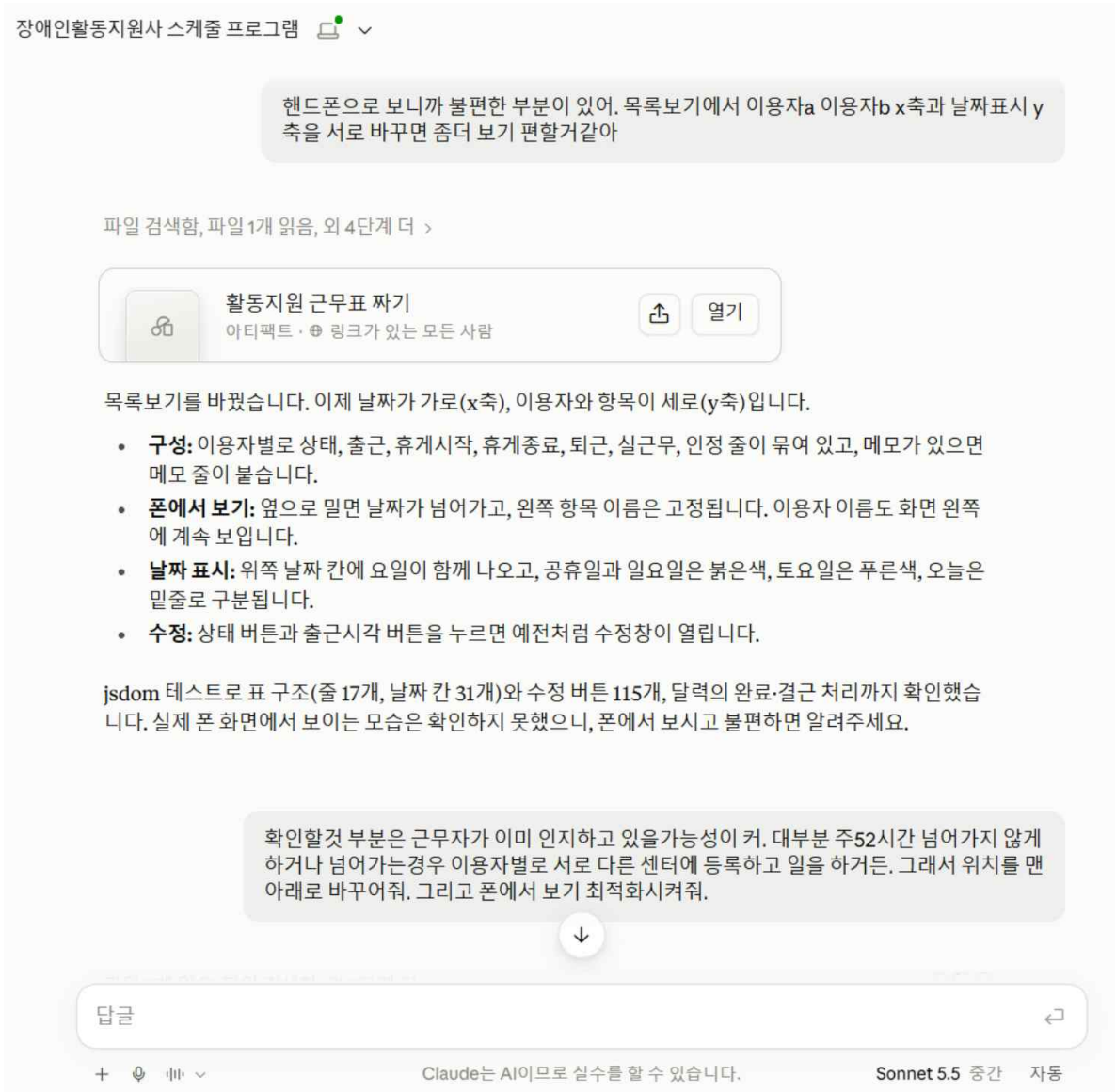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바우처시간은 이월된다고 들었어. 그리고 스케줄러니까 달력에서 보는게 어때?"라고 되물었고, Claude는 앞선 설명을 수정하며 달력형 보기와 이월 입력 항목을 추가했다.
의미	AI 제안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사용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다. 실제 바우처 이월·가산 규칙은 기관의 공식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04 실제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제를 직접 개선

캡처 10 | 목록형의 날짜·이용자 축 방향 변경

Claude · 2026.09.30 17:17~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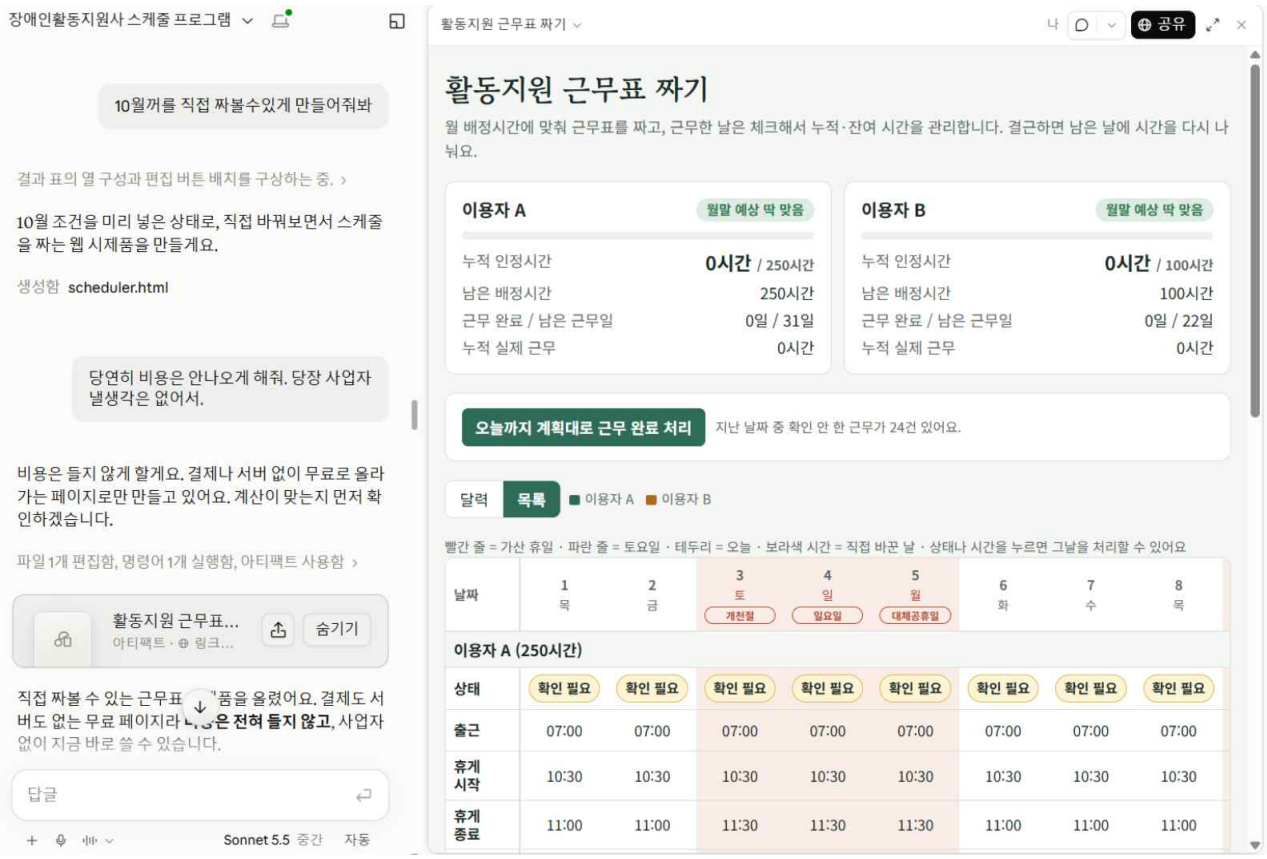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휴대폰의 목록보기를 확인하고 날짜와 이용자 A·B의 행·열 방향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했다. Claude는 날짜를 가로, 이용자별 항목을 세로로 재구성했다.
의미	AI가 만든 초기 UI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실제 기기에서 편한 구조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했다.

04 실제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제를 직접 개선

결과 화면 B | 근무관리·목록형 화면 개선을 반영한 아티팩트

Claude 아티팩트 · 2026.09.30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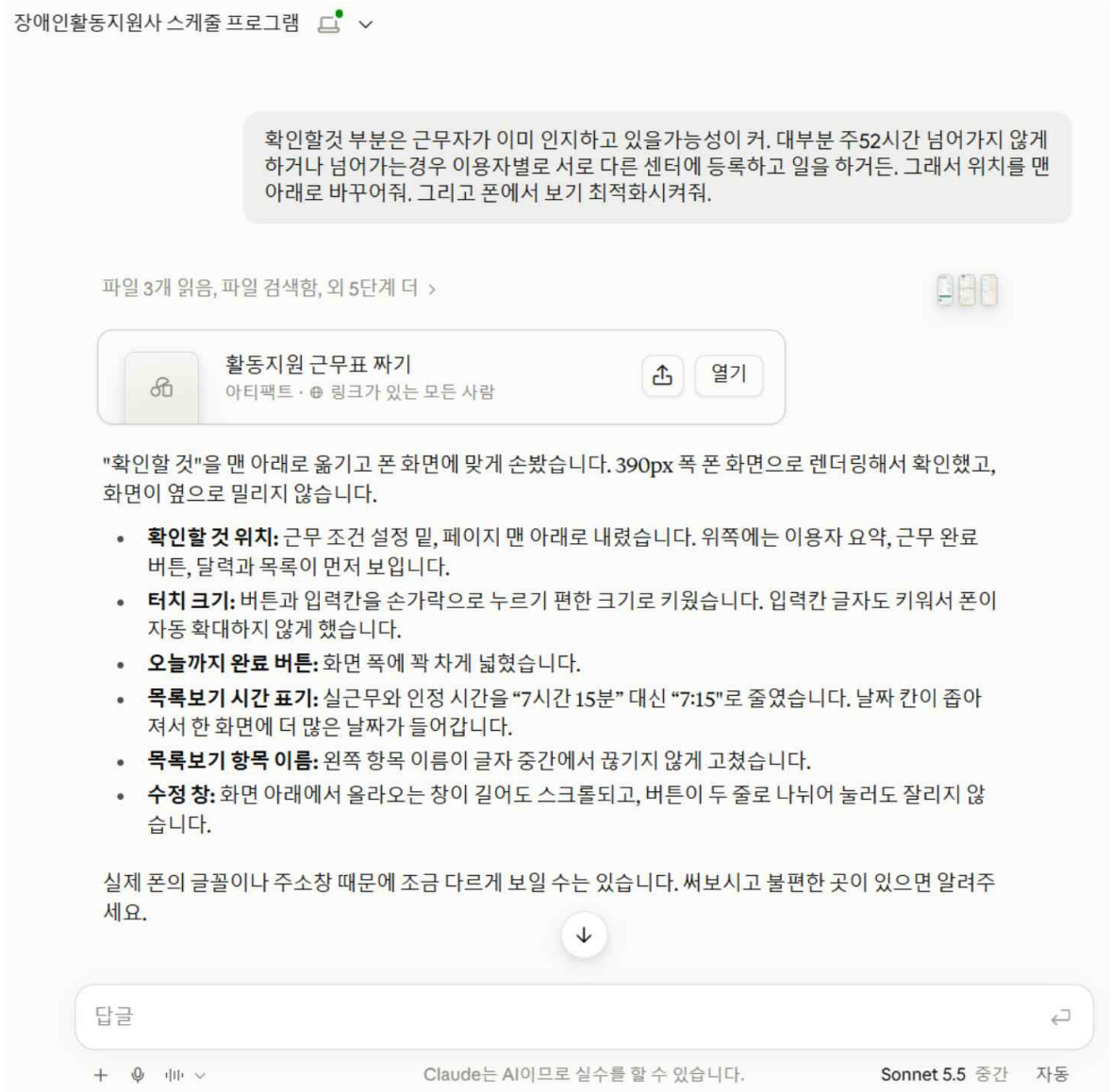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활동지원 근무표 짜기」 실행 화면이다. 이용자 A·B의 누적 인정시간·잔여 배정시간·진행 현황, 「오늘까지 계획대로 근무 완료 처리」 버튼, 달력·목록 전환과 날짜를 가로로 배치한 목록형 근무표가 보인다.
의미	캡처 07~10에서 확인되는 10월 근무표 생성 → 근무 완료·누적·잔여시간 관리 → 목록 축 변경 요청이 실행 화면에 반영된 결과다. 계획표가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관리형 웹 스케줄러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04 실제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제를 직접 개선

캡처 11 | 모바일 첫 화면과 정보 우선순위 조정

Claude · 2026.09.30 17:21~17:25



화면에 나타난 사실	확인할 내용의 위치를 아래로 옮기고 휴대폰에서 보기 최적화, 이용자 A·B 요약의 연속 배치, 완료처리 버튼의 가독성 향상을 요청했다.
의미	실제 업무 중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를 위로 배치하고, 부가 경고를 뒤로 보내는 사용성 개선이다. 주 52시간 경고를 아래로 옮긴 이유는 사용자의 현장 지식이다. 활동지원사는 대부분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일정을 짜고, 넘을 때는 이용자별로 다른 센터에 등록해 일하므로 근무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고였다.

04 실제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제를 직접 개선

캡처 12 | 실제 휴대폰 캡처 기반 화면 잘림 수정

Claude · 2026.09.30 17:25 전후



화면에 나타난 사실	오른쪽이 잘린 휴대폰 캡처 화면을 보내며 "이용자A아래 이용자B가 바로보이게 해주고 오늘까지 계획대로 근무 완료처리도 왼쪽정렬로 잘보이게해줘"라고 요청했다. Claude가 화면이 잘린 원인(목록 표가 페이지 전체 폭을 넓힘)을 찾아 가로 스크롤·요약 카드·버튼 배치를 다시 조정했다.
의미	실제 기기에서 발견한 문제를 스크린샷으로 전달하고, AI와 함께 UI를 검증·수정한 반복 개선 과정이다.

04 실제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제를 직접 개선

결과 화면 C | 휴대폰 화면 최적화 이후 실제 모바일 실행 결과

Claude 아티팩트 · 2026.09.30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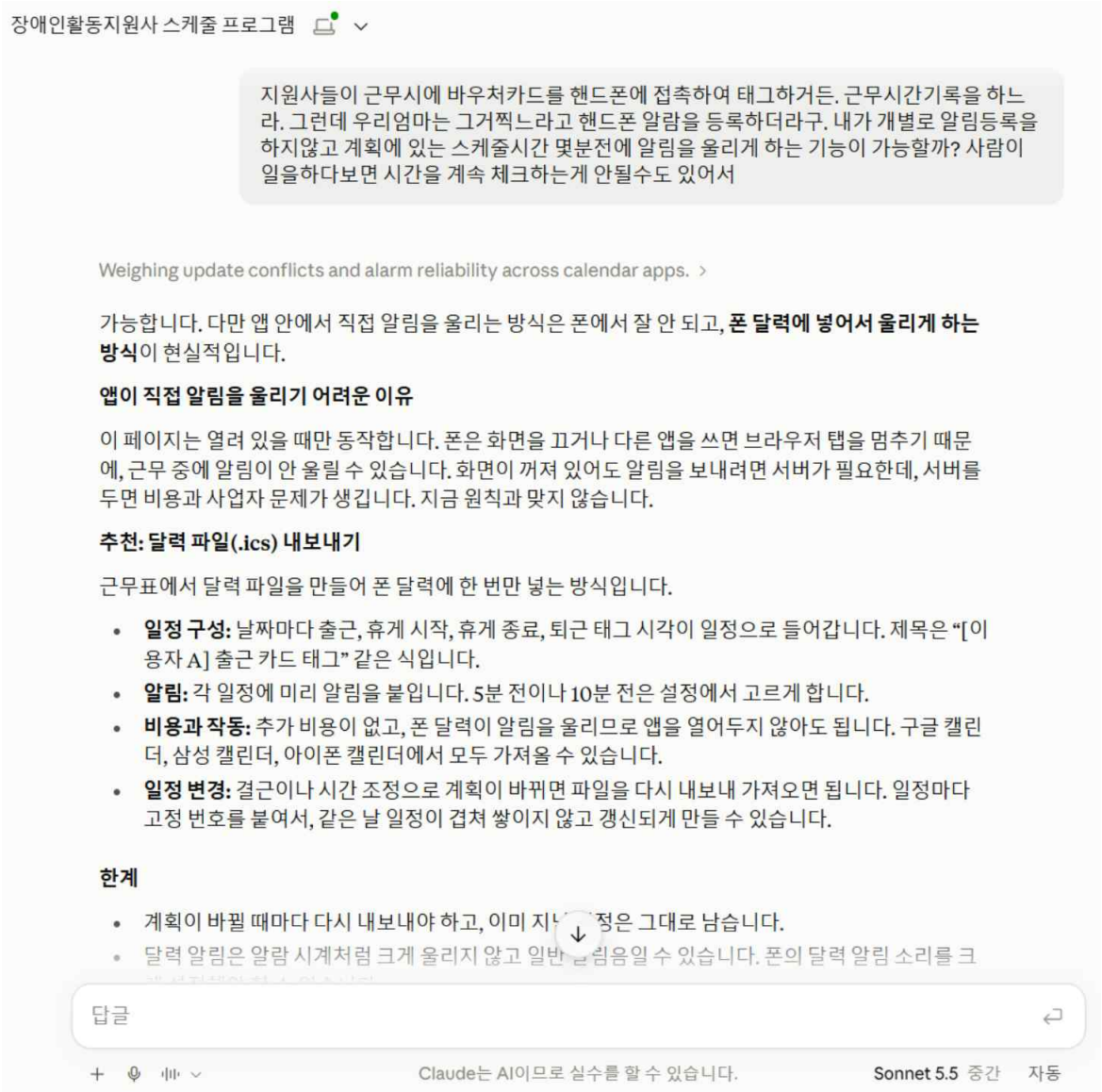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실제 휴대폰에서 실행한 「활동지원 근무표 짜기」 화면이다. 이용자 A·B의 누적 인정시간과 남은 배정시간, 근무 완료·잔여 근무일, 「오늘까지 계획대로 근무 완료 처리」 버튼, 달력·목록 전환과 월간 달력이 세로 화면에 표시된다. 화면의 26건은 2026.10.15 기준으로 「오늘까지 계획대로 근무 완료 처리」 버튼을 눌러 10월 1~15일 근무를 한 번에 완료 처리한 결과다.
의미	캡처 10~12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모바일 화면 가독성 개선을 실제 휴대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A·B 요약이 위아래로 연속 배치되고, 주요 조작 버튼과 월간 달력이 한 화면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화면은 근무시간 관리 기능이 실제 모바일 환경에 반영된 결과를 보여준다.

05 근무표를 실제 카드태그 알림으로 연결

캡처 13 | 어머니의 카드태그 알람 수동 설정 문제 제기

Claude · 2026.09.30 17:32~



화면에 나타난 사실	어머니가 출근·휴게 시작·휴게 종료·퇴근 태그 시각마다 휴대폰 알람을 따로 등록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근무계획을 기반으로 자동 알림을 만들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의미	프로그램 작성 후 실제 업무에서 반복되는 별도 작업을 발견하고 새로운 자동화 요구로 연결했다.

05 근무표를 실제 카드태그 알림으로 연결

캡처 14 | 휴대폰 캘린더 가져오기 시행착오와 해결 안내

Claude · 2026.09.30 17:43~1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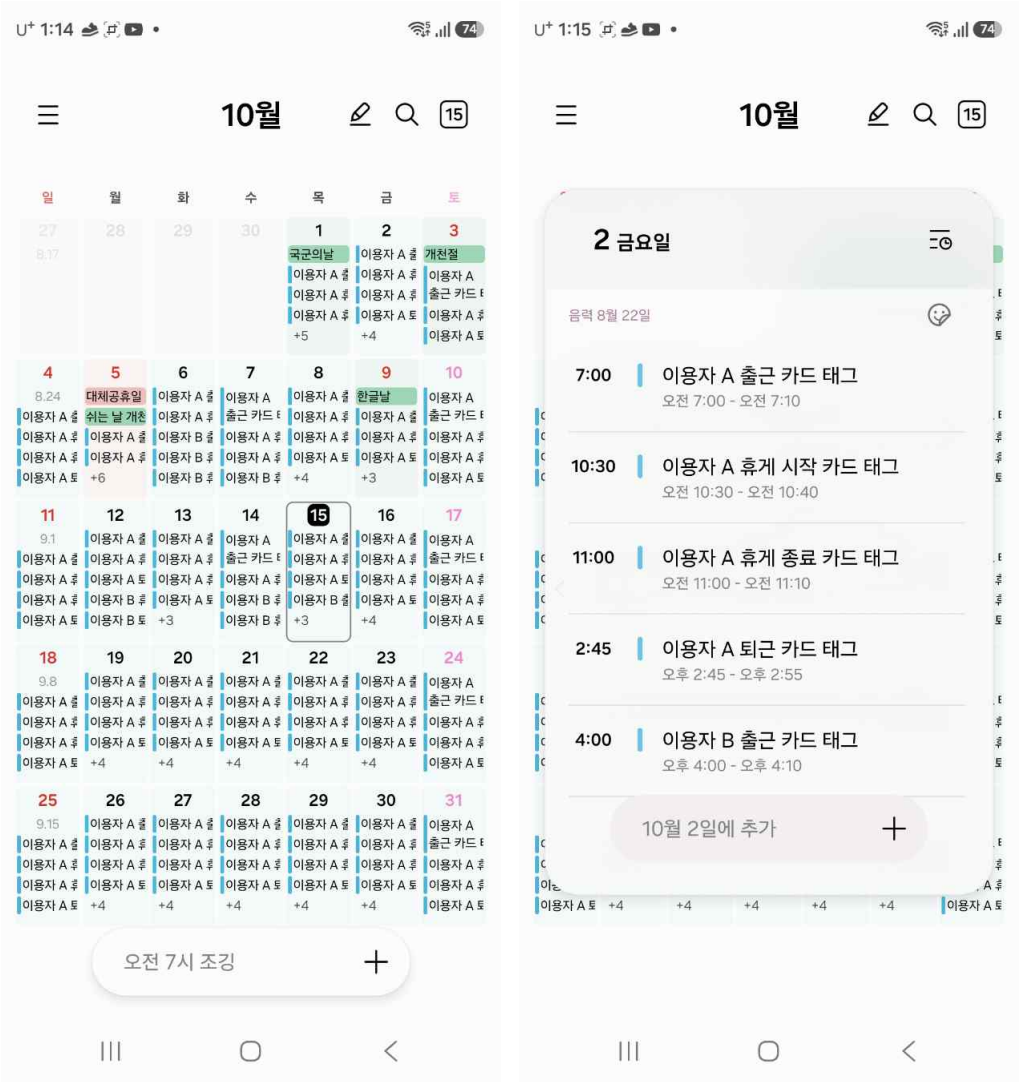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Claude가 카드태그 시각을 담은 .ics 일정 파일 생성 기능을 추가했다. 처음에는 파일을 열어도 캘린더 연결이 나타나지 않아 직접 문제를 회신했고, Claude가 다른 가져오기 방법을 안내했다.
의미	웹사이트가 꺼져 있어도 휴대폰 캘린더의 알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이후 이 일정 파일을 휴대폰 캘린더로 가져와 한 달치 카드태그 일정이 계획 시각대로 등록된 것과, 10월 16일 이용자 A 휴게시작 알림이 실제로 울린 것을 확인했다(결과 화면 D·E). 웹페이지에서 바로 .ics로 저장하는 과정은 아직 번거로워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05 근무표를 실제 카드태그 알림으로 연결

결과 화면 D | 휴대폰 캘린더에 등록된 카드태그 일정

휴대폰 캘린더 · 2026.10.15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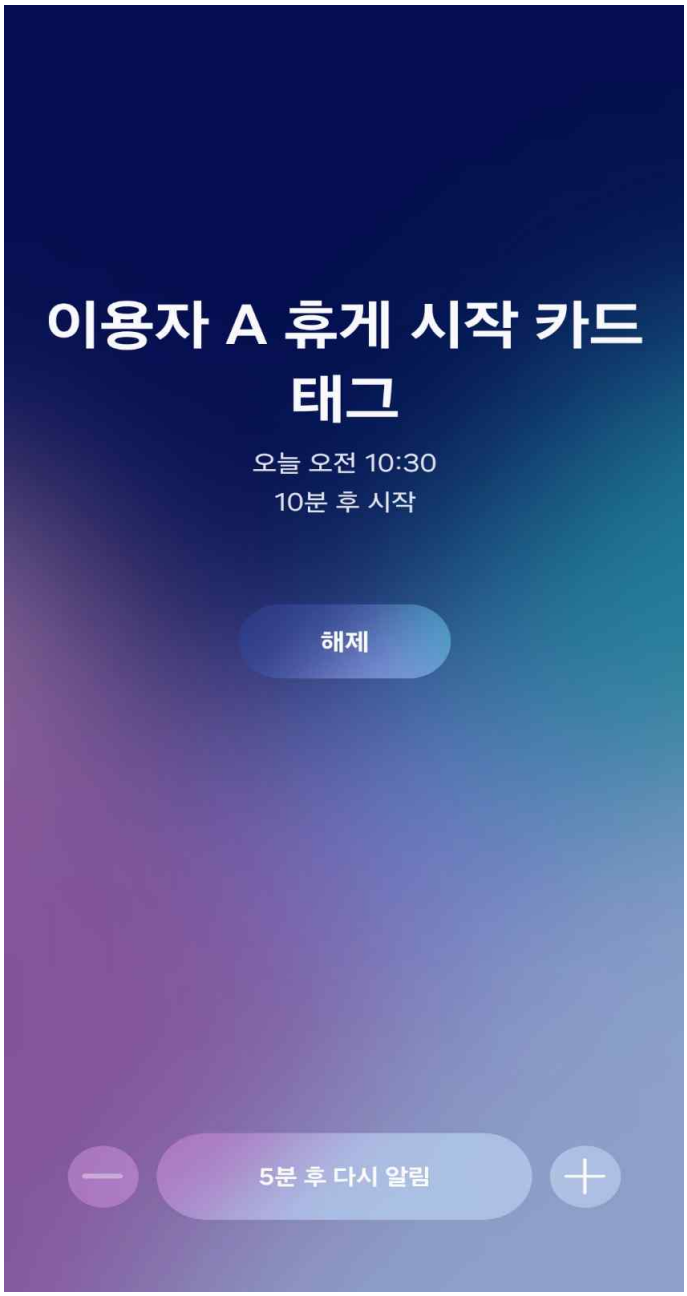


화면에 나타난 사실	근무표에서 만든 10월 카드태그 일정 파일(.ics)을 휴대폰 캘린더로 가져온 화면이다. 왼쪽은 10월 한 달 내내 이용자 A·B의 카드태그 일정이 들어간 달력이고, 오른쪽은 10월 2일의 이용자 A 출근 7:00·휴게 시작 10:30·휴게 종료 11:00·퇴근 오후 2:45와 이용자 B 출근 오후 4:00 일정이다. 근무표의 계획 시각과 같다.
의미	어머니가 출근·휴게 시작·휴게 종료·퇴근 시각마다 따로 맞추던 휴대폰 알람을, 근무표 데이터로 한 번에 만든 캘린더 일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정 파일에는 일정마다 미리 알림이 들어 있고, 실제로 울린 알림은 결과 화면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무계획이 바뀌면 일정 파일을 다시 만들어 등록해야 한다.

05 근무표를 실제 카드태그 알림으로 연결

결과 화면 E | 실제로 울린 카드태그 알림

휴대폰 알림 화면 · 2026.10.16 캡처



화면에 나타난 사실	2026년 10월 16일(금), 휴대폰을 쓰지 않을 때 뜨는 전체 화면 알림이다. 「이용자 A 휴게 시작 카드 태그 · 오늘 오전 10:30 · 10분 후 시작」과 해제·다시 알림 버튼이 표시된다. 일정 시각은 근무표의 이용자 A 휴게 시작 시각(오전 10:30)과 같고, 일정 파일에 넣은 대로 10분 전에 미리 울린 알림이다.
의미	근무표에서 만든 일정 파일이 캘린더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알림으로 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휴대폰을 쓰는 중에는 푸시 알림으로, 쓰지 않을 때는 이처럼 전체 화면 알림으로 표시된다.